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공실상가개인창고장기대여서비스

취미용품부터 원룸 이삿짐까지 장기 보관 가능...보온·보습시설, CCTV 완비

캠핑·스키용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가 집 가까운 서울 지하철역 안에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상가·유휴공간을 창고로 조성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 창고로 대여해주는 '또타스토리지'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개인·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공사는 최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개인 창고를 생활권 지하철역에 조성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하철역사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익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개인창고는 별도 마련된 창고 공간에 계절의류, 취미용품,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1인가구 증가 및 도심지가 상층에 따라 물품 보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1인·4인 가구 주거 비율이 높아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3개 역사 답십리역 이수역 가락시장역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1인가구는 원룸에 사는 비율이 높고 4인가구는 자녀의 집이 많아 집을 보관할 수납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또타스토리지'는 100%

비대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 전용 앱인 'T-locker 또타라커'에서 창고 접수부터 결제, 출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T-Locker 또타라커'는 공사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역사 내 물품보관·전달함 전용 앱이다.

이번에 '또타스토리지' 접수/결제/출입/민원상담 등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앱에서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을 각각 선택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출입허가를 받으면 된다.서울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창고는 캐비닛형 토탈 두 가지다.

캐비닛형은 우체국 5호박스 1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가구 없는 원룸 이삿짐, 취미용품, 수집품 보관에 적합하다.토탈은 우체국 5호박스 35~45개 정도 들어가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을 보관할 때 이용하면 좋다.최소 1개월부터 보관할 수 있으며 장기이용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결제는 앱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창고 내부는 보온·보습 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다.

내부를 실시간 녹화하는 CCTV도 설치돼 안전하다.보관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로 보상해주는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서울교통공



사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와 함께 1개월 간 요금 할인 이벤트를 연다.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이번 '또타스토리지' 서비스는 공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생활물류센터' 조성 사업 중 하나다.앞서 홍대입구역 등 4곳에 관광객들의 캐리어 등을 보관하고 공항까지 배송해주는 '또타라커'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신규 직영 물류사업이다.'생활물류센터' 사업은 지하철역사 내 공실상가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개인물품보관, 택배물품 보관·픽업, 관광객 캐리어 보관·배송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장소를 조성하는 내용이다.서울시 '도시철도시설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에 포함돼 최대 16.4억원의 서울시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공사는 올해 또타라커지, 또타스토리지 등 생활물류센터 9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최대 센터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하철 역사 공간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활물류센터 사업이 역사 내 장기 공실상가 문제를 해결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편의 증진 등 공익적인 효과를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피아식별은 국민의 기본이다

집안에 강도가 들면 누가 지킬까. 집안에서 조용히 나간다면 사람은 다치지 않겠지만 강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강도의 인원이 다수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이처럼 한 집안의 몰락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도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먹고 살기 어렵거나 이미 직업으로 전락한 자들의 범 죄는 누구든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운이 좋아 나만 괜찮으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모두에게 적용된다.좀 더 폭을 넓혀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칼을 휘두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대가 누군까. 밤낮 없이 대화, 평화, 운운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야 없었지만 이미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남과 북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현실이다.1950년 6월 24일 밤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 것은 3년 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을 상상도 못 했다. 설마하며 현실에 안주하다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기록하며 휴전에 들어갔지만 정작 남긴 상처에 대해 책임지거나 향후의 재발 방지보다는 아직도 이산가족들이 살아 생전 상봉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글로벌 세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야 그만한 경사가 없겠지만 이미 70년이라는 공백 속에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의 대립은 결코 쉽게 풀리지 못할 숙제로 남아있다.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도 여야가 있고 기독교와 중산층과 서민층이 있어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은 물론 고소·고발이 갈수록 증가하는 치열한 사회구조가 형성됐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지금의 대립과 갈등은 거론의 여지조차 없을 것이다.점점 멀어져가는 남북통일의 꿈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경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교류되는 듯하나 국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장밋빛 청사 전처럼 우리 민족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강대국의 이해타산에 맞춰 언젠데 남과 북은 적과 야군으로 총부리를 겨누는 표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해볼 건 해봐야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남북한의 모든 군사 전략이 전술, 훈련, 표적을 보면 대부분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넘어 일본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한반 맞짱을 뜰 것인가. 반대로 대한민국이 외침에 대해

방어하기 바쁘지 만저 누구 공격할 마음을 감히 먹을까.지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남한의 국방력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훈련이나 사격을 하는 게 목적이야. 마음 같아서는 오랜 기간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을 향해 미사일 발사 타격을 삼아야 하는 게 맞다.같은 민족끼리 한번 대판 싸웠으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부는 통일부도 마련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도 추진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나란히 등장하는 모습도 보였다.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 적과 야군은 구분하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발생한 포격사건으로 야군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 의문이고 자식도 할 것 없이 북에서 날아든 포탄으로 야군과 국민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고 10분 뒤 34분에 조선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대근 포인포 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해방은 날았다.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면전을 검토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만류로 억제되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다.서두에 여렘했듯 집안에 강도가 들어 불상사가 나면 당장 급한 사람은 집안사람들이다. 적과 야군도 구분 못 하고 정치권이 추종한다고 같이 덩달아 덩실거리길 일은 아니다. 합력과 계급은 별개다.지금도 고난도의 훈련에 임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눈을 부릅뜨며 경계에 나선 군인들의 애국심과 노력이 한낱 전쟁놀이나 연습에 그친다면 여차해서 같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누가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지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당연한 것이다.옛제도도 F-22 랩터와 F-35B 라이트닝 II등 미 공군의 최신에 장비가 일본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훈련 비행 등 작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외적으로 보도됐다.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한 규탄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뭐가 중요하지 모른다며 대처해야 그 필요성을 안다.오죽하면 연평도 현장을 방문하여 물병을 들고 포탄이 아니냐며 군대 안 갔다 온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안겨주었을까. 현재의 평화가 영구히 지속되길 바라며.....

역암김군석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우리 아이 성차별 언어·행동 바꿔봐요

“여자는 얌전해야 해”, “남자니까 씩씩하게 뛰”, “학예회 때 여학생은 발레, 남학생은 태권도 해야.”, “여자가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남자는 키가 커야지.”, “아빠다리고 앉아볼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직도 일상적으로 경멸하는 말과 행동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겪는 성차별적 말과 행동을 시민의 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꾸는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에는 총 1,053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406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 중 어린이가 겪는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으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1위로 꼽혔고 '교육 프로그램' 친구들의 말과 행동 '교재·교구·교육내용'이 뒤를 이었다.'엄마·아빠도, 여아·남아도 할 수 있는 나비다리' 시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바닥에 앉아 놀이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주로

하는 '아빠다리'를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다리 모양에 따라 '나비다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비 날개 모양을 본뜬 말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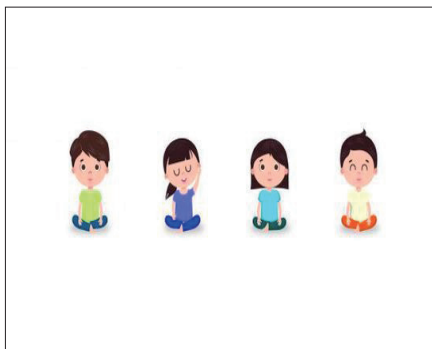
“여자 어린이도 진급할 수 있는 7세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급할 때 배정받는 ‘형님반’을 여아, 남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7세반’, ‘나무반’ 등 성별 구분 없는 언어로 부르자고 제안했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 놀이, 학예회, 역할극, 체육대회 등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이제는 개선하자라는 요구도 높았다.학예회에서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를 하는 것 역할극에서 ‘여아는 토끼, 남아는 사자’ 역할을 맡는 것 이름표, 실내화와 같은 준비물, 학용품이 ‘여아용은 핑크, 남아용은 파랑’으로 고정된 것 등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이다.어린이집,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여자는 드레스, 남자는 턱시도’, 생일파티에서 ‘여자는 공주 옷, 남자는 왕자 옷’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것, ‘여

자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남자는 짧은 머리에 큰 키’ 등 차림과 외모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도 약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등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 ‘멋진 왕자님, 예쁜 공주님’ 등 성별로 구분하는 수식어도 개선해야 할 성차별적 말과 행동이라는 의견이다.‘여자는 지마, 남자는 바지로 정해진 원복·교복’, ‘남자가 앞번호인 출석번호’, ‘짜의 성별을 고정한 남녀짜꿍’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정해진 규정, 규칙에 대한 성차별 개선의 요구도 높았다.가정통신문 등의 알림장에서 보호자의 역할과 아이 정도의 역할을 엄마하게만 부여하는 것도 성차별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이번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에 의견을 제안한 1,053명 중 여성은 73.6%, 남성은 26.4%를 차지했다.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의 전체의 63.2%였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양육

자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영유아기 아이에게 성평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 살 성평등, 세 살 바꾼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신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 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에서 아직도 성차별 개선의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서 아동기부터 성평등한 돌봄과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고양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이어 '시민제안', '적극행정'까지 '대통령상' 연일 수상 '겉경사'

이재준 고양시장, "아이디어 발굴·현장행정으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

위기 속에 빛나는 고양시 적극행정 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운영한 고양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호한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았다.타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는 등 K-방역을 선도했다.특히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결정 3일 만에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행정을 펼친 사례로 당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표준운영모델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226개 단체에서

출품한 우수사례들에 대해 2차의 서면심사를 거친 상위 4건의 사례가 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의 심사를 받았다.고양시가 운영 중인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최종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으며 특별교부세 1억원의 확보하게 됐다.한편 고양시는 '안심카 선별진료소'부터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안심 숙소',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안심 넷', 전화 한 통화로 방문자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안심 콜'까지 '안심' 행정을 연이어 내놓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공감'한 고양시, 성과도 '풍성'이에 앞서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심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시는 '한 줄 아이디어' 장구운영 국민 대상 '고양시장안대회' 공모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정

소년 제안교육 '제안장작소' 국민신문고 공무원 '제안발굴단' 전문가 활용 제안교육과 컨설팅 실시 제안심사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중앙 우수 제안' 심사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양시의 심사를 거쳐 중앙으로 추천한 시민 제안 1건이 대통령상을, 고양시 공무원 제안 2건, 시민 제안 1건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 심사결과'에서 고양시 공무원 제안 1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대통령상을 수상한 시민제안은 초등학교 입구 도로와 인도의 경사로를 개선해 휠체어와 장애인 스쿠터, 유모

차 등의 보행에 장애를 없애자는 제안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공무원제안은 정부양곡 판매방식 개선이다.매월 행정기관에 방문 신청하는 수급자의 번거로움과 민감함을 눈여겨 본 공무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을 제안하며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시가 발굴해 수상한 제안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장애요소가 주는 불편함과 상황이 줄 수 있는 '감정'에 공감해 개선을 고민한 결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 더 귀 기울이고 공감해 더 많은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가겠다"며 "열린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쳐 현재와 미래 시민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며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석 없는 서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1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별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을 완화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면, 차량 고장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종료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둘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의 장기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셋째, 무인 자율주행차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시속 10km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교통 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10km/h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



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전운행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자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급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 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상찬기자

완주군의회, 살기좋은 완주를 위한 논의

인구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

완주군의회는 지난 19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군민의 복지와 행정집행에 대한 투명성 등 다양한 건의와 주문을 요구 했다.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해 정준영 의원이 "청소년수당을 매일 5만원씩 관내 만 13~18세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유입효과 있을 것" 언급했다. 이인숙 의원은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국립어린이집 운영할 경우 경쟁력, 공신력, 재정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해 철두철미한 검증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완주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이경에 의원은 완주군 공무원의 관외 거주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를 언급하며 완주군으로 전입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적극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임귀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으며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

원할 것과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어린이집 급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찬영 의원은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중복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언급했다.

또, 애항학급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토록 주문했다. 서남용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일자리에 완주군민이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윤수봉 의원이 민간위탁의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언급했으며 이서준 군남이 성지에 대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임귀현 의원은 놀토피어의 전화 예약 접수만 되는 것을 지적하며 현대 흐름에 맞춰 갔을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개선토록 주문했고 전통문화공원 수탁계약서의 수입금에 대해 수탁기관의 이견 발생의 여지를 지적하면서 추후 위수탁계약 작성 시 초과수익금 징수에 관한 조항을 수정해 군에서 초과수익금을 세입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했다.

김승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공공공정공감가치로 지속가능 발전도시 토대 마련"

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시정방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과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광명시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2021년 예산은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지속가능 발전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토론한 지속가능발전 의제, 광명시2030종합계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사업, 500인 원탁토론회 정책사업, 청년속의예산 등 시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형 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광명시는 2021년도 예산으로 9,454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한 광명형 뉴딜추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방역 강화 복지 안전망 강화 공정한 출발을 위한 청년정책 평생학습의 해 추진 쉽고 힐링이 있는 자연

속 도시 등 모두가 함께 잘사는 광명시를 위해 골고루 투입된다.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에 173억원을 편성하며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 확대를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신재생 수열 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탄소중립을 실현해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분야에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스마트 산학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중년일자리, 희망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양질의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광명시를 위한 복지 예산은 3,366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시대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 등 1인가구를 위한 지역차원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 특히 2021년을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미래를 펼친다.

이를 위해 294억원의 예산을 교육 분야에 편성했으며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쉽고 힐링이 있는 자연 속

테마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천과 목감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며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은 숲길 등산로를 정비하고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등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등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광명의 미래가치를 높일 많은 사업들이 완공될 것"이라며 "광명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전순희.최정부기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강민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진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명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이삭아삭 시림달콤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소·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양파·뽕으로 기른 영양임대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altaslow
영양군농업

경기도교육청, 21일 2020몽실학교 연합정책마켓 열어

청소년이 직접 만든 25개 정책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21일 청소년자치 배움터 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을 열었다.

정책마켓은 아동, 청소년들이 만든 교육정책과 아이디어를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교육청 등에 소개하는 정책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네 번째다. 정책마켓에는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 5개 몽실학교가 참여해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정책마켓에서 청소년들은 질병 결석에 따른 학습권 보장, 온라인 전자책 활용 방안, 비대면 상담 방안 등 25개 정책을 제안한다. 또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과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이 참석해 청소년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정책마켓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정책마켓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정책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 '판매자 만나러 가기'를 눌러 정책 설명을 듣고 '구매 소감 남기기'를 하면 된다. 그동안 정책마켓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2017년 30개, 2018년 27개, 2019년 71개 등 총 128개로 이 가운데 청소년교육의회, 지역별 몽실학교 구축, 마을 유희공간 활용, 교장 공모제, DMZ 동상일몽 캠프, 비정규직 쉽터 조성 등은 교육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마켓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영광군,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기 지정 15개소 재심사 및 신규 신청 접수

영광군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며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광군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음식점 14개소, 미용업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일제 정비기간에 기존 15개소의 가격·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군은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도 실시한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기존 15개소에서 최대 20개소까지 지정업소를 늘릴 계획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건비 부담, 쓰레기비용, 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4일까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만기자

늦기 전에 즐기자, 고양의 가을정취 3색 3멋

책길지도 따라 도서관·동네서점 독서산책

가을비가 내리며 날이 꽤 쌀쌀해졌다. 이번 주말, 더 늦기 전에 고양에서 늦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세 가지 코스를 소개한다. 독서산책, 벽화산책, 자전거 라이딩 등 취향 따라 골라보자. 책길지도 따라 독서산책

고양시 시립도서관, 동네책방, 독립서점 등 고양시에는 올해 12월 개관하는 일산도서관을 포함해 18개 시립도서관, 17개 공립 작은도서관, 6개 독립서점, 27개 동네서점, 7개 북카페가 있다. 경의선과 지하철 3호선 어느 역에서 내려도 걷다보면 도서관, 동네서점, 독립서점, 북카페를 만날 수 있다.

얼마 전,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펴낸 '고양책길지도'가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고양책길지도'는 도서관, 서점,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8개 고양시립도서관은 도서관마다 공원을 끼고 있어 산책하기 좋다. 전면 리모델링 후 지난 2월 개관한 화정도서관은 여느 세련된 카페 못지않다.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최근 북큐레이션을 강화했다. 슬기로운 홈스쿨 생활, 다들 북큐레이션, 문방구탐험 등

도서관마다 차별화 된 북큐레이션 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고양시에는 총 27개의 동네서점과 6개의 독립서점이 있다. 20년 넘는 터줏대감 동네서점부터 신생 독립서점까지 발 닿는 곳마다 특색 있는 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서점마다 독서동아리, 문화강좌,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사랑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양시는 '독서생태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독서생태계 따라 산책하며 독서 내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지. 화전동 벽화마을에서 가을감성 충전하기

화전동 알록달록 벽화마을은 2011년부터 만들어졌다. 약 4km에 달하는데, 지금도 새로운 벽화를 그리거나 기존 벽화를 보수해 생생함을 유지하고 있다. 벽화꽃길, 동화길, 힐링길, 무지개길, 달맞이길 등 골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3가지 관람코스가 있는데, 화전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화전동 벽화마을은 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나서 낯은 골목길을 구도심의 명소가 재탄생시켰다. 고양시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이며 경기도 우수 벽화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도 촬영했고 블로거, 유튜버들도 즐겨 찾는다. 늦가을, 사진 맛집 화전동 벽화마을에서 2020년의 마지막 가을감성을 사진에 남겨보자. 철책선 없어진 평화의 길 달린다고양평화누리 자전거길고양평화누리 자전거길은 자유로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총 14코스의 고양누리길 중 제6코스 평화누리길에 해당한다. 특히 민간

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행주대교 북단에서 신월초소까지 3.8km 구간이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개방됐다. 군부대철수 및 철책 제거 사업으로 단절되었던 길이 연결된 것이다. 자전거길은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출발해 파주출판도시 휴게소까지 이어지는 18.8km 코스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랍사르 등록을 추진 중인 생태계의 보고 장항습지와 국난극복의 현장인 행주산성을 볼 수 있다. 늦가을 만끽할 수 있는 여색과 갈대밭이 장관이다.

김영근기자

화성시 동탄성심병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경기 남부권역 최초·10명 중증응급환자 동시 치료

화성시에 위치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경기 남부권역 최초로 10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20일 동탄성심병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및 화성시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보건건강국장, 경기도보건의료 정책과장, 화성시보건의료장 등이 참석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격려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해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다양

한 질환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고압산소치료의 주요한 용도는 화재 등으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중독이나 가스색전증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와 화성, 당뇨병, 뇌졸중, 골수병, 버거씨병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이용 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화재와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로 화성시의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의정부시, 숲길 환경 정비 지속 추진

의정부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피로감 회복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가을 단풍으로 물든 숲길에서의 휴식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해 등장한 신조어다.

의정부시는 숲길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우울감 극복 및 면역 체계 증진 등 도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소풍길, 의정부시 대표 숲길로 거듭나 자연친화적 숲길 '소풍길'은 의정부 대표시인 故전상병의 작품 '귀천'에서 우리의 삶에 비유된 시어 '소풍'으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말 그대로 '어릴 적 소풍 가는 기분으로 즐겁고 가볍게 가볼 수 있는 길'이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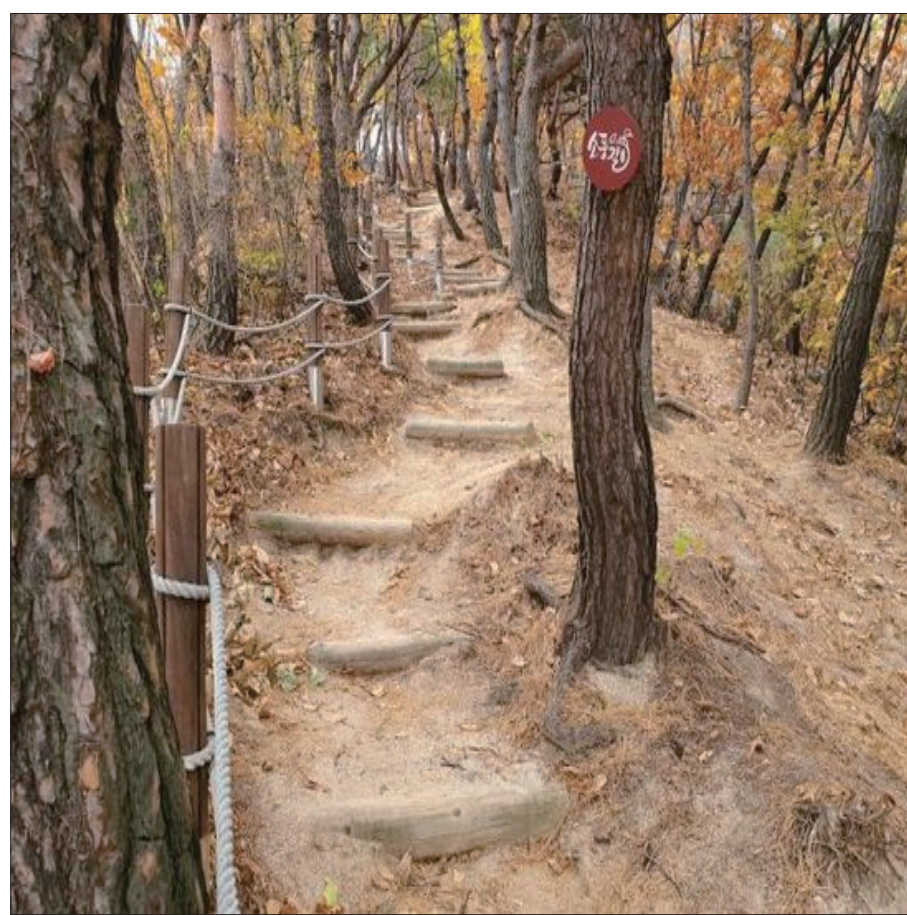
소풍길은 2011년에 개장해 의정부시를 동심남복으로 에워싼 원도봉산, 사패산, 흥복산, 천보산, 수락산 등 주요 산을 연결한 대구간 6개 코스와 장랑천, 부용천 등 시내를 가로지르는 소구간 3개 코스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즐기며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되

어 있다. 각 코스별로 명상의길, 하늘전망대길, 불로장생길, 삼림욕길, 부용길, 장재울길, 행복길, 쌍둥이길, 맑은물길 등의 테마별로 꾸며져 있으며 안내판, 이정표, 쉼터공간 등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소교량, 계단, 안전휀스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행복한 숲길 만들기 프로젝트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풍길 트레킹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인 '그린시티 의정부, 행복한 숲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으로 선발한 인력 80여명을 숲길 17개 구간에 배치해 등산로 정비, 제초, 쓰레기수거, 시설물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훼손·유실된 숲길을 신속히 정비했다.

또한, 폭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숲길 구간을 조사해 친환경 야자매트를 설치함으로써 보행



안전감을 높여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친환경 야자매트는 토사 유실과 침식 방지 및 등산객들의 미끄럼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면 부식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안

비용 의정부시장은 "소풍길, 등산로 등 언택트 휴양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충해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 온라인 개최

동대문구, 28일 유튜브 통해한국어말하기대회, 결혼이주여성합창단 공연 등 진행

동대문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제12회 동대문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대문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며 이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 결혼이주여성합창단 '행복메아리' 공연 다문화자녀 맘나라말 뽀네기 대회 다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연이어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유튜브 시청자와 함께 베트남요리, 일본요리, 한국독도 테러리즘, 중국 판다 LED등 만들기 등을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2가지 종목을 선택해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전신청하면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를 보며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이날 진행

되는 모든 행사는 유튜브 '방구석 세계문화축제'를 통해 볼 수 있다. 구는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집체된 지역 분위기를 살리고 가족들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영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식기자



국내 문화재인들의 축제, 2020 국제문화재산업전 개최

2020년 11월 26일~2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서 온·오프라인 병합 하이브리드 행사 운영

국내 유일의 문화재·박물관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20 국제문화재산업전'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이 병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돼 안전을 우선시 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시분야는 문화재 보존, 문화재 방재, 문화재 수리·복원, 문화재 활용, 디지털 헤리티지, 박물관 등 6개 분야의 70개 사, 270여 개의 부스가 참가해 지난해보다 참가규모가 확대돼 한층 더 전문성을 갖춘 전시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참가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동남아 5개국 8개 단체와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 국내 우수한 문화재 기술의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포럼'을 비롯해 '2021 문화재정책워크숍'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지식·정보 교류의

장으로 펼쳐져, 행사 1일차에는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포럼'을 통해 최근 국내·외의 가장 트렌디한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을 접할 수 있으며, 행사 2일차에 개최되는 '문화재 보존 젊은 과학자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문화재 보존 분야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발표가 이어진다.

올해는 동시 개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이 설립한 국내 유일 문화재 전문 특수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국제학술포럼에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문화유산과 과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교 홍보와 전공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1층 실내전시장에 특별한 90개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 문화재 장인 단체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는 제



15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과 제1회 문화재장인 전통기법 진흥대회를 개최해 문화재 장인들의 갈고닦은 기술을 친근감 있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재 잡페어를 비롯해 인문학 포럼, HERITAGE KOREA AWARD, 지역 문화유산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HICO와 경주 일대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재 잡페어에서는 선배들의 취·창업 경험을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부터 문화재 기업 및 단체들의 구인게시판, MBTI 성격유형검사,

이력서 사진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문학 포럼에는 알쓸신잡에 출연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역사학자 서경덕 교수의 강연이 개최되며 현장 참관인원 제한으로 인해 행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참가업체와 참관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1일 1회 특별 방역 실시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 안전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세종시설공단, 치유와 소통을 위한 은하수공원 손편지 공모전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이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손편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은하수공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새로운 추모 문화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손편지 공모전은 은하수공원 안장 시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족 및 지인 누구나 1인 1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공단 또는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서 공식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작품을 선정해 은하수 상품권을 수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 추석에 직접 참배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아쉬움에 크게 공감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손편지 공모전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은하수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2020 은하수공원 손편지 공모전

2020. 11. 20. ~ 12. 06 (17일간)

세종시설공단 은하수공원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참배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고인(故人)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객참여 공모전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대상 및 시종료

- 공모 주제: 고인(故人)을 그리며 마음을 담은 손편지
- 공모 기간: 2020. 11. 20. ~ 12. 06 18:00시까지 (17일간)
- 참가 자격: 은하수공원 안장(묘역)에 있는 고인에게 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우선
- 작품의 크기: A4 1-2페이지
- 심사 기준: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내공고문, 안내문 및 현상시 설명서 참조
- 당첨 작품: 2020. 12. 10. 예정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시상 혜택: 1. 상품권 및 기념품 등
- 시상 대상: 1.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 시상 방법: 1.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 시상 장소: 1.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양주시치매안심센터, 전국 최초 어린이 치매인지 교육자료 저작권 등록



양주시는 양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10월 자체 제작한 어린이 치매인지 교육자료가 전국 최초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등록한 어린이 치매인지 교육자료는 애니메이션 '단비특공대, 할머니를 지켜라'와 유아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된 기억활동북 '두뇌가 말랑말랑해' 등 총 3건이다. 양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공감도시 양주'를 슬로건으로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치매예방교육을 위한 어린이용 치매 인지교육 교재가 없다는 점에 착안, 유아기부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부정적 치매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치매 인지 교육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작했다.

치매인지 교육자료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습관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는 스티커 붙이기, 미로 찾

기, 색칠하기 등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긴 다양한 체험교구로 구성했다.

이는 올해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초롱초롱 두뇌상차 대여사업', '키즈 & 스쿨 브레인상차 대여사업' 등 어린이 치매인식개선 사업으로 이어졌으며 참여 아동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 사업실시 전·후 설문조사 결과, 유아의 경우 치매 자가적도는 76.6%, 치매인식도는 41.2%가 증가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치매 자가적도는 22.4%, 치매인식도는 33%가 향상되는 등 높은 인식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아동들의 올바른 치매 예방습관을 조기에 형성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공감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저작권을 등록한 치매인지 교육자료는 각종 아동교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안산시-산단공 경기본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여개 우수기업 참여

안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0 '안산·시흥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코로나19 사태로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구직자에게 채용기회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개의 우수기업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에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체는 온라인 및 대면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 및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기업체의 정보를 '언택트'로 파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구직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진주시,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청소년수련관, 청년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대변신

진주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을 위해 건축 설계를 공모한 결과 ㈜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청년허브하우스의 역할과 비전에 알맞은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원도심 활력 방안, 지역과의 조화, 다양한 체험 제공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당선작은 도심에 머무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계획이 우수하고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대지레벨에 대한 고민과 실내 공간 계획, 프로그램별 사용에 따른 동선 계획 등을 건축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

가를 받았다. 특히 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이 가득한 마을 활력 거점'이라는 열린 형태의 목적에 부합하고 접근성 및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 계획으로 주변 건축물에 위압감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우수하게 표현했다는 평이다. 진주시는 당선작 설계자와 오는 12월 실시할 계약 체결을 체결해 약 6개월 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년허브하우스가 건립되면 다목적 강당의 가변적 공간구성, 4차 산업 분야의 직업 및 진로 체험을 통해 전문기술 교육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지하에 조성되는 주차공간으로 성북지구의 주차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홍호/기자



서대문구, '신촌, 파랑고래'로 문체부 장관상 수상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공간 탈바꿈' 평가

서대문구는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신촌, 파랑고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6년 시행돼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전국 35개 출품작 가운데 1차,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신촌, 파랑고래'를 포함한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심사 기준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가치 실현과 고유문화 창조,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기획,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여부 등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신

촌, 파랑고래'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공간을 개성 있고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평가했다.

이곳은 청년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지역문화 및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공간으로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신촌 지역 대학생, 청년, 상인들이 모여 교류하며 지역 연계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청년문화 허브'로 운영되고 있다. 명칭은 청년의 맑고 푸른 이미지와 고래 입 모양을 닮은 건물 입구에 착안해 지어졌으며 작고 둥그란 은빛 판들로 싸여 있는 유려한 외관이 공원 속 조각품 같은 느낌을 준다. 이달 18일 대치동 씨뽕갤러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체부 장관상 수상작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촌, 파랑고래'가 청년들,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2020 안산·시흥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2020. 11. 23(월) ~ 2020. 12. 11(금)

https://jobfair.incruit.com/kicoxansan

일(Job)모아 드려내일(Job) 찾으세요!

온라인채용관
30개 기업 채용 공고 및 온라인 입사지원

부대행사관
이력서/자소서/이력서, 자소서 무료 컨설팅, 이력서/자소서 작성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서울시 주유소의 가짜석유 불법 판매 행위 특별 합동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급변 특별 점검의 취지는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

유관리원과 2020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찰구정으로 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찰구형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픈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도 일선 산업현장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재은/기자

경남도,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부녀회, 누리소통망 운영으로 가격 담합행위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해당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해당 아파트 부녀회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세조작 행위는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해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고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매도자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이라 부르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 행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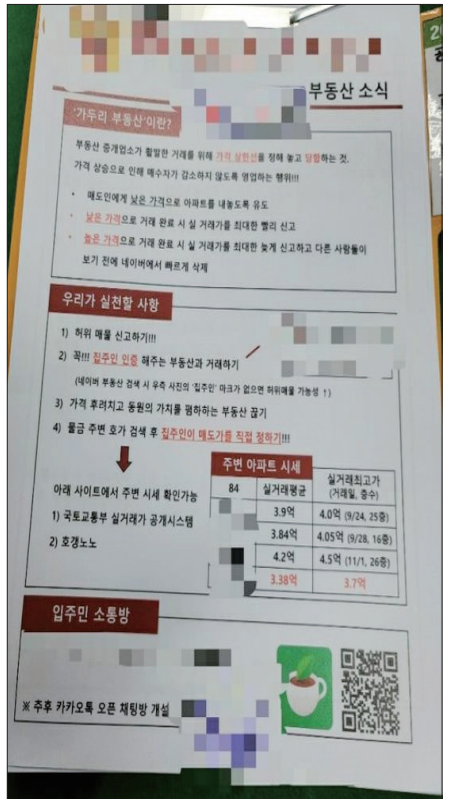
이에 경남도에서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해 교묘히 가격을 교란시키고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 및 집값 담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바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장흥군,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한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시범 사업 운영

상시접수 선착순 게시, 다음달 12월 본격 추진

장흥군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시범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옥외 광고물의 설치 허가·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광고주와 옥외 광고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신고 소홀로 잠재적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수막 설치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나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날짜에 게시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흥군에서는 전남도와 협력해 전남도청 및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게시대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현수막의 광고 내용은 사행성, 유해성, 음란성 광고를 제외한 군정 홍보, 소상공인 및 청년 사업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등을 우선으로 구성해 게시대의 게시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처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선진 옥외 광고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부산시, 개인택시 1만여 대 대상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산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개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산지역 개인택

시 1만3,837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반은 택시 승차대와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기타 택시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무작위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 스티커 부착 자동차 불법 정비·점검 택시미터기 워엄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개인택시는 관련 규

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즉각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부산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번호판 관리 등에 소홀한 146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병성만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창원시,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단속 실시

창원시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물건을 중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가파른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재건축, 재개발 인근을 대상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짓신고 의심자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담

합, 허위매물 광고 등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분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홍보리플릿 제작·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 홍보 사업의 문제 줄지어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9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력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의 소통 부족과 홍보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적의 의정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사이의 소통의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력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정 광고모델 및 홍보대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정의 경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있음에도 경기도의 각종 홍보 내역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민은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다며 15명의 의회운영위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홍보대사의 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보대사는 경기도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홍보내역,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홍보대사의 대표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에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대안과 함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박상찬/기자



DDP소장품 전시, VR 브랜드 체험... 일상 위로 '온라인 서울디자인위크'

'80년 컬러TV 등 근대 디자인 제품으로 코로나 이전 평범 일상 재조명 3D 전시

국내 컬러 TV방송이 본격 시작된 '80년대에 출시된 금성TV, '30년대 미국산 진공청소기 같은 근대 디자인 제품을 통해 코로나 이전 평범했던 일상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온라인 가상 전시장을 접속하면 작품 하나하나를 360도 3D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여행 기념품을 사기 위해 꼭 들렀던 명소가 국내 공예 디자이너들의 명품 브랜드를 한 자리에 모은 'DDP 디자인 스토어'를 집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다.소상공인과 디자이너 150여 명이 개발한 테이블, 스톤 등 콜라보 제품 103종도 런칭한다.

일부 제품은 직접 구매도 가능.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전시와 포럼, 워크숍, 마켓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디자인 축제 '2020 서울디자인 위크'를 11.20~12.31 연다고 밝히고 농치지 말아야 할 주요 BIG 7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서울디자인위크'는 국내외 디자이너, 소상공인, 대학생 등 디자인 관련 업계와 주제 간 협력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시, 페어, 워크숍,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열어 서울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디자인 축제다.올해로 7회를 맞았다.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사는 '일상의 위안이 되는 디자인'을 주제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던 행사를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해 집에서 스마트폰과 PC로 즐길 수 있다.7개 프로그램은 일상의 예술, 그래픽 전 행복의 기호들: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 전 제2회 휴먼시티디자이너어워드 휴먼시티 아이디어 포럼 DDP디자인 페어 온택트 갤러리 투어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다.

첫째, '일상의 예술, 그래픽전'은 국내외 10명의 그래픽작가들의 그래픽을 원화, 조형물, 조명, 소리, 영상, 인터랙티브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전시다.놀이와 예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래픽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DDP 홈페이지에서 전시투어 영상도 볼 수 있다.다양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국

내외 10명의 그래픽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2016년 영국 'AOI World Illustration Awards'에서 뉴렐런트 책부문 수상과 동시에 최고상, 2017년 나미 쿡쿠르 퍼플아일랜드상, 같은 해 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김지민 작가 '한국출판문화상', '뉴욕 타임스 그림책상', '보스턴 글로브 혼 북 명예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행복의 기호들: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은 일상적인 제품들을 통해 코로나 이전 평범했던 일상에 숨어있는 디자인의 가치를 주목해보는 전시다.

DDP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 디자인 제품 40점이 전시되며 12월 중순 오픈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3D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3D 전시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가 전시에 대해 설명하는 5편의 유튜브 영상전시도 열린다.앞서 10.22과 11.16에 '코로나 이후의 전시'와 '디자인과 일상'이란 주제로 두 차례 개최된 심포지움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오프라인 전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기존 전시와 달리, 전시관 자체를 온라인에 만들고 작품 하나하나를 360도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전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2회 휴먼시티디자이너어워드'는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등을 제시한다.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대상은 12.14 공개된다.DDP 현장 시상식이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휴먼시티디자이너어워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복합적인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1개 도시, 99개 프로젝트가 접수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보여줬다.대상 발표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디자인'이란 주제의 컨퍼런스도 열린다.

넷째, 대학생들의 특목 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휴먼시티 아이디어 포럼'은 12.14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관련 전문가 강연도 열릴 예정이

다.재단은 휴먼시티 디자인의 가치를 대학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11.14 디자인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31개 팀이 참여하는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워크숍을 유튜브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휴먼시티 디자인 콘셉트와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

다섯째,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 디자인 신제품을 만날 수 있는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소로 DDP대표 전시 콘텐츠이다.

여섯째, 명성 있는 디자이너들의 명품 브랜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DDP 디자인스토어'를 VR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갤러리가 11.20 DDP 홈페이지에 오픈한다.

'DDP 디자인 스토어'는 명성 있는 46인의 디자이너 공예가가 한국의 전통적 기법과 우수한 디자인을 살려 만든 명품 브랜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이다.오전 10시~오후 9시 DDP 살림터 1층에서 만나 볼 수 있다.이러한 스토어의 전시품을 온라인 공간에 구현해 어디서든 3D공간에서 가상 투어를 할 수 있다.

일곱째, 청년디자이너 전문 취업 플랫폼인 'DDP영디자이너잡페어'를 통해 100명의 영디자이너에게 온라인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16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디자인잡 컨퍼런스'는 매주 금요일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디자인 분야 취업준비생과 졸업 예정자들에게 개성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주고 선호도 높은 국내·외 기업의 인제상과 채용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온라인 취업정보 플랫폼이다.재단은 현재 7명의 현업 디자이너들이 진행하는 1:1 비대면 포트폴리오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서울디자인위크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가져올 디자인의 혁신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디자인계와 시민들이 협업해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그린 도봉, '지구미소 온라인 축제' 활짝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지구미소 축제 개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도봉구 '제3회 지구미소 축제'가 펼쳐진다.2018년 9월 '도봉구 생태얼굴 선포식'을 계기로 시작된 '지구미소 축제'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환경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지구미소 온라인 축제 웹페이지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도봉TV'를 통해 행사기간 종료 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제3회 지구미소축제는 '올해도 지구미소는 ON'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봉구 지역 곳곳의 다양한 환경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리포팅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축제 프로그램은 중랑천 멸종위기생물 탐방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실속 강좌 지역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숨은 일꾼들 햇빛을 키우는 에너지 농부 이야기 에너지자립마을을 향한 주민 커뮤니티 활동 등 주민 리포터가 지역의 명소와 활동사항을 탐방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더불어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층 깊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축제 영상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와 지구미소 실천다짐 인증샷 등 주민 참여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참가자 중 500명을 전산 추첨으로 선정,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은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나온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도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어린이대공원 걷고 경품 받자 광진구민 비대면 힐링걷기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진구민 비대면 힐링걷기' 이벤트 진행

광진구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진구민 비대면 힐링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광진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이 비대면 걷기 행사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스마트폰으로 걷기 측정 앱을 실행한 후, 걷기 거리를 3km로 설정하고 어린이대공원 내 마련된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된다.

걷기 코스는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를 시작으로 동물공영장, 구의문, 데니스장, 놀이공원, 키즈오토파크를 거쳐 다시 열린무대로 돌아오는

한 방향 코스이다. 완주를 마친 구민은 어린이대공원 곳곳에 배치된 배너 QR코드를 통해 인증 화면으로 접속해 걷기 측정 앱의 기록 캡처 사진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25일부터 29일까지 행사기간 내 3km 이상 걷기를 인증한 구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된다.또 걷기 인증과 함께 참여사진 및 후기를 추가로 제출한 구민에게는 총 50명을 심사·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5만원 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체육회 또는 어린이대공원 내 안내부스로 문의하면 된다.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과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지루한 일

상의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자체장 최초 '납세자 권익상' 수상

재산세 감경, 납세자연합회는 서초구에 힘 실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시민단체가 주는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시민단체가 서초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서초구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19일 개최한'제9회 납세자 권익상'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이 세정 부문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 7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세정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2년 1회 시상식 때인 박훈 시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국제청 고위 간부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구청장이라 1대 24의 상황에서 재산세 감경을 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조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알림 서



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재산세 경감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이 조례의 골자는'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차지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것이다.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고 할 수 있다.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서초구민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서초구는 조례안을 추진하려 한 것은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며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

울시가 앞장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조 구청장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안긴 것은 재산세 환급을 둘러싼 다툼에서 사실상 서초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진다.

의도하지 않은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진 1가구 1주택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서초구의 정책적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재산세 감경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린 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서울시가 제시한 탓에 당장은 재산세를 둘러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 환급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원/기자

2020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로 마음방역하세요~

서울 성북구, 20~28일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개최

매년 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성북구 대표 축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9일간 온라인과 성북동을 중심으로 펼쳐진다.12회를 맞이하는 이번 누리마실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대규모 온집 형태의 축제가 아닌 온라인과 산발적으로 펼쳐지는 전시와 공연으로 그 형태를 바꿨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성북구민과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다.

지역의 40여개 예술단체와 지역가게, 커뮤니티 등 주민 단체가 참여해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예술로 위로하는 '마음방역'부터 시민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감정지도', 일회용

품을 기부하는 '괜찮아요' 제조 챌린지와 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라인'까지 성북 곳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한 세계음식과 놀이로 만나는 세계문화체험, 독립영화로 보는 문화다양성영화상영회 등 그동안 누리마실이 끌고 왔던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는 계속 이어진다.누리마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온라인과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사전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누리마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들지만 예술과 축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수능 후엔 전략 싸움 성북구, 2021 정시지원전략 입시 설명회 및 입시상담실 운영

성북구, 2021 정시전형 대비 온라인 설명회 및 1:1 상담실 운영

성북구가 2021년도 대입을 대비해 '2021 온라인 정시지원전략 입시 설명회'와 '2021 정시지원전략 입시상담실'을 개최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전략을 제시한다.

다음 달 10일에 진행될 '온라인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는 윤상형 강사가 모의고사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변환, 지원 가능한 대학 검색, 전형요강 분석 및 전년도 대입전형 결과자료 분석 등 알찬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한다.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구민은 19일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 신청'에서 사전 접수 후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아울러 성북구는 오는 12월 23, 24, 26일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 1:1 '정시지원전략 입시상담실'도 운영한다.

접수는 12월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학교 유형별, 계열별, 지역별로 구성된 상담교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른 입시공백을 최소화하고 다가올 2021 정시전형 지

더 가까운 이웃 행복성북
더 안전한 동네

성북구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1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

2020.12.10 / 12.23.~12.26.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	정시지원전략 입시상담실
모집대상 성북구 관내 학부모 및 수험생	모집대상 성북구 관내 학부모 및 수험생126쌍
일시 및 진행방식 2020. 12. 10.(목) 10:00~12:00 유튜브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일시 및 진행방식 2020. 12. 23.(수)/24.(목) 13:00~20:40 2020. 12. 26.(토) 13:00~17:10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성북구 오래산로 3길 8기)
신청방법 2020. 11. 19.(목) 14:00 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모집강좌'에서 선착순 접수 (무료)	신청방법 2020. 12. 4.(목) 14:00 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모집강좌'에서 상담 시간대별 선착순 접수 (무료)
강사 윤상형 (영동고 교사,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상담교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상담교사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T. 02-2241-2489

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성원/기자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서대문구 인권문화행사 연다

서대문구가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9일과 10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특강, 영화 상영, 작품 전시 등의 인권문화행사를 연다.또한 구청 소식지를 통해 낱말 퍼즐 이벤트도 진행한다.9일 오후 3~5시 열릴 특강에는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한다' 등의 저자이자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가 나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인권'이란 주제로 강의한다.10일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는 인종 차별을 다룬 영화 '그린 북', 편견과 자존감을 그려 낸 영화 '아이 필 프리티'가 잇달아 상영된다.이번 행사기간 중 '2020 서대문구 인권 콘텐츠 공모 수

상작'이 전시된다.이들 작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구는 구청 소식지 '서대문마당' 12월호를 통해 '가로세로 인권 낱말 퍼즐 이벤트'도 마련한다.세계인권선언문을 활용한 문제가 제시되며 빈칸에 들어갈 답을 찾아 완성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구는 200명을 선정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인권문화행사가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며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산청 동의보감촌 매력·이색 행사장소 선정

경남도, 남사에담촌 등 '유니크 베뉴' 인증

산청군은 동의보감촌과 남사에담촌이 전문 회의 시설이 아닌 경남만의 이색 행사장소를 뜻하는 '2020 경남 마이스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유니크 베뉴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에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올해 경남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장소는 산청 동의보감촌과 남사에담촌을 비롯한 도내 9곳이다.

경남도는 선정된 장소에 홍보용 사진촬영, 온라인 홍보, 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유니크 베뉴를 선정, 경남만의 이색적인 행사장소를 발굴해 왔다.

2019년 선정 장소는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 도내 12곳이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올라다 보이는 시천면에 자리하고 있다.시천면은 '경의사상'과 '실천정신'을 강조하며 평생을 청렴한 선비로 보낸 남명 조식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연구원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강의실 8개와 300여명이 한 번에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체육시설, 선비문화 체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은 물론 공무원과 기업 등 단체 연수도 가능하다.동의보감촌은 명실상부한 대



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메카로 손꼽힌다.

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의 이야기를 품은 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118만㎡의 거대한 규모로 조성된 동의보감촌은 약초 테마공원, 한방 테마공원 등 곳곳에 한방을 주제로 한 체험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사단법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제1호 마을로 지정된 전통한옥마을 '남사에담촌'은 우리나라 전통고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에담'은 옛 담장이라는 의미다.예를 다해 손님을 맞는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3.2km에 이르는 토석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81호로 지정돼 있다.마을 안에는 고택은 물론 국악계 큰 스승으로 손꼽히는 기산 박헌봉 선생을 기념하는 기산국악당과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이 묵어갔다는 산청 이사재가 있다.군 관계자는 "MICE 산업의 활성화는 한방 향노화의 고장 산청이 가진 매력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동의보감촌을 등 각 장소에 알맞은 관광환경을 더 발전시켜 한국 대표 '유니크 베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2020년 영양군민상 수상

지역개발부문 김정수, 산업부문 남호길, 사회봉사부문 이재덕, 기타부문 한선수 수상

영양군은 2020년 영양군민상에 김정수, 남호길, 이재덕, 한선수씨를 선정했다.

영양군민상은 군민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영양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27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군민상은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 지역개발부문 1명, 산업부문 2명, 사회봉사부문 1명, 기타부문 2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여부와 그 동안의 공적 등을 엄격히 심사한 끝에 11월 19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의 김정수 수상자는 영양등기소에서 팔수골 입구에 은행나무 100그루 가로수를 식재해 영양군에 기증해 동서대로 고추테마 거리의 진풍경을 연출하며 길의 공간이 되도록 했으며 경로당과 마을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고 지역사회 안정과 화합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산업부문"의 남호길 수상자는 친환경 고추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섰으며 직거래장터, 핫페스티벌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최신 농업기술지식 획득을 위해 연구기관에 교육을 이수한 후 신기술보급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사회봉사부문"의 이재덕 수상자는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으로서는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장으로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경로당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노인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해 노인들의 자립과 자위향상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기타부문"의 한선수 수상자는 영양군 산나물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향우회원과 지역민과의 화합의 시간

을 가지기도 했다.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영양군에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해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금번 수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양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되면서 12월말 중무식 때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들은 "군민들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정되어 부끄럽다"하면서"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김해시, '2020경남 찻사발 전국공모전 및 초대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김해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김해분청도자박물관에서 '2020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기념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은 지난 7월 7일 김해문화의전당 운술미술관에서 경남도와 우리시가 주최하고 김해도예협회 주관으로 경남지역의 융성했던 차와 도자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도예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최됐으며 대상을 비롯한 100여점의 다양한 찻

사발을 선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좌장인 이우상 한국국제대학교 전통장을 비롯해 찻사발 전문가 및 관련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찻사발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진다.발표 주제는 '주문사발에 관한 연구', '김해에서 만들어진 고려사발' 등 4개의 세부 주제로 장기덕 청봉오 대표, 안홍관 지암오 대표, 서해진 한국문화정품관 갤러리 대표 이상균 차와 문화

경상남도 도자기 최고장인인 이한길 김천도예원 대표 등 4명의 도예가와 함께 경남 찻사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펼칠 것이다.

한경음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찻사발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과 어울리는 현대적인 찻사발의 저변확대 도모는 물론,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에 대해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도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토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부산시,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찾아내 내 일 잡아내 내일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내 내 일 잡아내 내일'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일하는 여성이 결혼, 육아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녹화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11월 27일까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토크콘서트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 후작성 이벤트,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퀴즈 풀기 '도전 가로세로 퀴즈' 등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을 활용한 이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지급된다.토크콘서트는 '내 일을 통해 꿈꾸는 내일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하는 여자라이프 스킨 이재은 대표의 특강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패널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패널 토크에는 부산여성가



촉개발원 최정락 연구원, IN교육전략연구원 전미란 대표를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력단절을 극복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배일화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로 지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기획·추진해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경남의 미래차는 달린다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18개사 21건 지원

경상남도가 19일 창원 호텔인테리너에서 창원, 사천, 김해,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과 자동차부품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미래자동차 산업 현황 및 기술동향'에 대한 기술세미나 후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향후계획에 대한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자동차산업은 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테슬라, 니콜라 등 신생기업 등장으로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기구동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내연기

관 자동차의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을 지원해 지역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8억원을 도내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경남도와 5개 시군이 18개사 21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고용 30명, 매출 7억4천만원, 특허 3건 등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술개발패키지지원, 사업화패키지지원, 실증지원 등으로 미래차 분야 유망품목을 개발

하고 사업화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 및 한국자동차연구원 등남본부와 함께 미래 신사업 발굴과 친환경차 사업지원 지원도 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신산업연구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은 단순히 환경요소를 줄이기 위한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생존 경쟁이며 헤게모니 싸움"이라며 "도내 시·군과 함께 관련 업체들이 속도감 있게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진주시, 2020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법정교육 실시

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200여명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법·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과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고봉환 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졌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규이 시장은 "입주자 구성원 교육을 통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

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입주자 구성원 간의 윤리의식을 함양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기대"라고 밝혔다.

정명호/기자

또, 가고 싶은 곳, 영천을 보여줄게

영천시는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기발하고 산뜻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영천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 수요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영천관광 UCC 공모전을 실시했고 지난 16일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영천의 재미있는 놀거리와 먹거리 등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개개인의 개성이 가득 담긴 영상상을 3분 이내로 담아, 언택트 여행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가보지 않고도 직접 가본 것처럼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최우수상에는 영천화랑설화마을,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등을

배경으로 4인 가족이 총 출동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영천의 숨은 매력을 공유하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즐기는'영천에 이런 곳이 있다고? 보여줄게 즐겨봐'와,코로나19로 여행하기 쉽지 않은 요즘, 딱 딱한 영천관광 UCC 공모전으로 떠나는 안전한 언택트 여행으로 일상을 치유하고 힐링하는'영천으로 떠나는 언택트 여행', 두 작품을 공동으로 선정했고우수상은 색다른 데이트를 원하는 친구에게 영천에서도 이렇게 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별별야, 영천은 어때?'가, 장려상은 '자연과 문화가 반짝이는 반짝반짝 영천', '영천 팔공산 둘레길'이 차지했다.수상작품은 영천 관광 홍보를 위해 유튜브, 블

로그, 영천관광 앱 등에 업로드하고 주요관광지 내에서도 송출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영천관광 UCC공모전은 영천에서 이번이 처음 실시한 것이고 코로나의 여파로 관광지가 폐쇄되고 여행 자체 상황이 계속되는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많은 영상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공모전 못지않게, 3분 안에 영천의 매력을 담아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천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작품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안동시, 2020 낙동강 힐링로드 개최

11월 21일 스마트 걷기대회, 사생대회, 청소년 콘테스트 열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2020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가 오는 11월 21일 월요일, 낙강물길공원,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힐링로드 행사는 낙동강 명품 수변공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야외 활동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스마트 걷기대회,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등으로 분산해 개최된다. 주요 행사인 '스마트 걷기대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동 낙동강 유역 내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낙동강 둔치 산책로를 걷는 행사다. 경북일보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주요 길목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증할 수 있고 선착순 1,000명에게는 안전키트 기념품이 제공된다. 경품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12월 8일 경북일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는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12시 30분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일원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19일까지 경북일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사전접수 받고 오후 2시부터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물길공원 2시의 데이트'는 매회 정상부에서 낙강물길공원까지 걷기대회와 함께 열린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댓글사연, 신청곡, 돌발퀴즈, 낙동강 삼행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기프트콘과 당일 현장 행운권 추첨도 진행된다. '청소년 콘테스트'는 오후 4시부터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내 강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무

김영호/기자

동서교통망 조기 구축 위해 경북·전북 손을 맞잡는다

김천-전주 철도, 대구-전주 고속도로 조기추진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19일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이루던 역사의 통로인 전북 무주군 라제동에서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견인할 동서횡단철도와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체결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경유 5개 시장·군수는 동서교통망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동서교통망이 착수 될 때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 / 최병규 전주부시장, 나해수 진안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공동 건의문에는 전북과 경북 유일의 철도망 연결계획인 김천-전주간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착수와 장기간 표류중인 대구-전주간 고속도로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담고 있다. 경북과 전북을 연결하는 철도인 김천-전주간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수차례 중앙정부에 추진을 건의했으나 추진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김천간 철도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 예타 중인 새만금-군산까지의 새만금-전주간 철도를 연결할 수 있으며 김천에서 전국으로 철도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 간 동서3축 고속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다.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 운영 중이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해 공사 중에 있으며 아직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전북에서 건의 중에 있다. 대구-무주 구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두 교통

망이 완전히 연결되면 경북과 전북으로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단축되어 화물과 여객을 신속히 운송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새만금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환서해와 환동해,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신경경제벨트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북과 전북권역의 제조업과 농산물 물동량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 지역 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건의문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서 연결의 시대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양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집중될 때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상생과 균형발전의 필수요소인 동서교통망 조기 구축으로 동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동서화합과 문화·경제적 상생발전을 이룰 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석/대기자

군위군,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

군위군은 지난 16일 19일 이틀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설명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새뜰마을사업 운영위원회, 마을 주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사업에 대한 열의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현재, 군위군은 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로 저출산

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이 점차 쇠락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농촌 부흥을 위한 해결책으로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새뜰마을사업을 준비 중인 효령면 화계 1리와 의흥면 이치 2리는 지역 내에서도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타 마을에 귀감이 되는 마을로서 열악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

아 마을 환경 정비와 개선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의흥면 이치 2리 새뜰마을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역수 리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앞장서 사람이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겠다 또한, 이번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취약한 생활여건까지 개선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마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식/기자

경북도, 대구와 손잡고 가상·증강현실 산업 생태계 육성한다

11.18일 VR·AR 디바이스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협업 선포식 개최

경상북도는 구미시, 대구시와 가상현실·증강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18일 구미시 3층 대회의실에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관련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VR·AR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VR·AR 디바이스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협업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최종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5G 기반 VR·AR 디바이

스 개발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계기로 전자전기·모바일 제조산업의 강점을 갖춘 경북과 국내 최대 안경산업 집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대구가 협력해 VR·AR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VR·AR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VR·AR 디바이스 핵심부품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디바이스 전문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모듈 VR·AR 핵심 센서 모듈, 5G 통신모듈 기반 구동보드, 경량 VR·AR 디바이스 어셈블리 패키지 등 디바이스 개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날 협약 선포식은 협업식 행사 1부는 얼라이언스 추진현황 보고와 협약 체결, 2부는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VR·AR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및 안경의 부품·소재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경북과 대구가 융합 얼라이언스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 얼라이언스 간 전국단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얼라이언스 협업을 통해 향후 VR·AR 디바이스 사업 발굴, VR·AR 디바이스 활용·확산 지원, VR·AR 디바이스 기업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VR·AR 디바이스 기반 융합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개최된 VR·AR 디바이스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선포식은 코로나19

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경북 제조산업의 재도약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며 VR·AR 디바이스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구경북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용호/기자



대구 범어 마크서밋

남원시, 제1기 청년협의체 발대식 본격행보



남원시는 지난 19일 제1기 청년협의체 위원회를 구성, 발대식을 가지고 남원시장과의 간담회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청년활동가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1기 남원시 청년협의체는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직장인, 사업가,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39세 청년

을 대상으로 모집, 지역청년 32명으로 구성됐다.

남원에촌에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청년위원들과 남원시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남원시장과의 간담회, 위원장 선출, 청년활동가 강연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협의체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일자리·창업 등 4개 분과별 수시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행정에서 정책화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남원시만의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앞으로 진행될 활동에서 담당부서는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받아 협의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동서 횡단 철도,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의지 표명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은 19일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에는 양 지사를 비롯해 노선 경유지 지자체에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신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옛 백제와 신라를 잇던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덕유정에서 열렸다.

전북과 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고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취약해 호·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며 "두 지역 주민의 역사적 숙원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동·서 교통망이 연결되면 환서해안권과 환동해안권을 잇는 新경제벨트가 구축돼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두 지역 간 이동 시 통행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접근성 제고와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로 인한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전주~김천 철도는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길이 101.1km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2조3,894억원 예상되며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JCT를 잇는 길이 128.1km 규모로 투입예산은 4조 8,578억원 정도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동서가 막힘없이 통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균형축을 남북에서 동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동서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에 정부가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며 "지역에서는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5자녀 다둥이 가족사진 최우수상 선정

군산시가 공모했던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8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저출산·합계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가정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접수기간 동안 총 28가족 52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소관부서 1차 사전심사를 거쳐 30개의 작품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종심사는 온라인 시민투표 접수와 전문가 15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으로 총 8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5명의 다둥이 가족의 모습을 담은 '아빠 힘내세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사랑은 방울방울',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장려상은 '우리는 남매',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생겨요', '출근하고 싶은 아빠', '아빠가 만든 키즈카페', '아들만 잘 나오면 되지'가 각각 선정됐다. 코로나19로 군산시장 상장과 부상은 수상자들에게 개별 지급 될 예정이며 부상은 최우수상 50



만원, 우수상 각 3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은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이 조성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발효음식 콘텐츠부터 치유숲 트레킹, 순창 철인 3종 경기 등 다양하게 구성



올해 2회째를 맞는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가 올해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국민과 함께한다. 20일과 21일 양이틀간 유튜브 채널인 슬로슬로tv를 통해 발효마을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발효마을축제는 지난해 6월 섬진강 마실휴양단지 일원에서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을 테마로 축제장 곳곳에 불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선보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적성슬로공동체위원회가 주관해 축제장 곳곳에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성공가능성을 열었다.

올해는 적성면 지내마을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과일식초 체험, 전통주 체험 등 발효축제에 걸맞는 콘텐츠들로 구성했다. 또 섬진강과 용

평산을 통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용평산 치유숲 트레킹과 순창 철인 3종경기 대회 콘텐츠도 준비했다.

체계산 출렁다리와 섬진강 자전거길, 섬진강 카누체험을 사전제작해 코로나19 레포츠헤 활동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체험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화면에 담았다.

특히 과일식초와 전통주, 수제맥주, 자연발효 연일머핀 만들기 체험 등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실시간으로 진행해 전국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오프

로드 RC카와 수상 RC보트 체험을 영상으로 제작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구성했다.

정정지역 순창에서 나오는 발효식품, 농특산물, 공예품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슬로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훈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쉽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콘텐츠를 내실있게 구성해 온라인 축제 또한 사람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담양군, 공무원 창의 능력개발 및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담양의 자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앙부처 공모대응 기법 훈련



담양군은 5년차 미만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창의 능력개발 및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0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감안해 비숙박 일정으로 수북면 소재 두리농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각 실과소 및 읍면 신규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첫날 개인별 창의성 발전을 위한 창의 능력개발 기법과 둘째 날에는 지역이 지닌 자원을 이해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경향에 맞춘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흥

미 제공과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앞으로 연차적인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 지속가능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홍근/기자

함평 모정마을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전남 함평 모정마을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해보면 모정마을숲이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해마다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조사·평가를 실시해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총 60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함평 모정마을숲을 비롯해 전국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함평 모정마을숲은 나산면 나산리 일원 1만586㎡ 규모의 마을숲이다.

조선 숙종시절 효성이 지극하다 소문난 죽산 안 씨에게 효자각이 하사된 뒤 마을 주민들이 그에 걸맞은 숲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300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 30여 그루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주변 나산수변공원, 앵두공원, 장승곶대공원 등과도 잘 어울려 예술·문화적 가치는 물론 친환경 관광자원의로서도 체계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



계자는 "내년 3월까지 모정마을숲 앞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수목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

치와 지역 유·무형 자산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탄력

진안군은 지역의 활기를 찾고 매력적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진안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마련에 나섰다.

군은 2016년부터 23억원을 투자해 자전생태탐방로 섬진강 생태쉼터, 화전교 지질생태탐방로 은천숲 조성사업 등을 조성했으며 2020년 전라북도 생태관광 평가 시 관광객이 찾아오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에는 방문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해 기존 마을창고를 활용해 생태탐방, 꽃차체험 등 커뮤니티 공

간을 조성해 생태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시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4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이에 생태관광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은천마을을 대상으로 인삼 등을 활용한 생태탐방 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진안군의 생태관광 체험은 5~10명의 가족단위의 인원을 대상으로 마이산을 넘어가는 아름다

운 숲길과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풍광과 마을을 지켜주는 은천숲을 주축으로 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에코매니저의 해설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안군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보전, 주민참여, 소득증대의 3박자가 맞는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철/기자

광주시, 2020년 우수중소기업인 및 기술장 선정

우수중소기업인 5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



광주광역시시는 2020년 우수중소기업인 5명과 기술장 3명을 선정하고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상패를 수여했다. 우수중소기업인은 지역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명이 신청하면서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은 엔피닉스㈜ 강상도 대표(썬더하이텍 김용구 대표(썬더하이 김정기 대표 지오씨) 박인철 대표 동진기업(썬 양오열 대표가 선정됐다. 우수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이자차액 추가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2종의 금융·세제·행정 혜택이 2년간 부여된다.

우수중소기업인 수상자인 엔피닉스(주) 강상도 대표는 마이크로 광학부품을 생산하며 5G 핵심 광통신 광학부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최초 웨이퍼 제조기술을 확보해 연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광통신용 광학 부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썬더하이텍 김용구 대표는 자동차 차체부품을 생산하며 경영방침을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두고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지역 인재 등용과 광주형일자리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하며 자동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썬더하이 김정기 대표는 유기농 쌀과자, 영유아 간식을 생산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도 경영'을 추구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원들과 함

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기부와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지오씨 박인철 대표는 광케이블, 광부품, 광소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광케이블 제품 등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동진기업(주) 양오열 대표는 2차 전지설비를 주생산품으로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연평균 38% 이상의 매출 성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 지역 인재 고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기술장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인 중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썬우성정공 김부곤 씨(썬 광일공 이영재 씨(썬전진기업 임용택 씨 등 3명이 선정됐으며 기술 장에게는 6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썬우성정공 김부곤 씨는 26년간 근무하며 이중 사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했고

김택윤기자

김영록 지사, “농업정책 발굴, 돈버는 농업 만들겠다”

19일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와 소통 간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한농연 전라남도 연합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발굴해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는 정임수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장 등 도 임원과 시군 회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전남 농정 발전 방안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임수 회장은 “전라남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실증연구센터 유치 등 한 발 앞선 농정을 펼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농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업의 지도자로서 농업·농촌을 굳건히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줘 감사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부안군 시설직, 새만금 사업지구 견학 효율적 사업추진 중추적 역할 기대

부안군 시설직공무원은 새만금사업지구내 오는 25일 12:00 도로개통을 앞둔 동서2축도로 현장답사와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조성 현장 및 수변도시 조성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부안군이 새만금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 분담 및 동참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되는 동서2축도로는 총 길이 116.47km로 새만금지역을 창조경제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도로로서 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전 완공되는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 주요지점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는 교통의 중심축역할을 하게되어 새만금에서 길게 심포까지 전 구간을 답사 하면서 부안군과의 연계 및 접근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실습의 장이 됐다. 2023년에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조성사업은 총 1,553억원을 투입해 여의도의 3배규모인 884ha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사전행사인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할 수 있도록 155ha의 토지를 우선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조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저감 방안에 대해 부안군과 적극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인 만큼 차



질없는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프리잼버리 부지조성 현황브리핑을 통해 부안군의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 했다. 그리고 금 말 에 착공예정인 자족형 복합도시 새만금 수변도시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2024년 까지 1조3476억원을 투입해 국제협력용지 6.6km2조성으로 2만5천명이 거주할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국제업무시설 및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안군도 수변도시에서의 중추적인 역할건의와 수질관리에 따른 해수유통 이슈에 대한 수면관리선변경등 부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홍수위 관리 등이 논의 됐다.

그리고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 방수제도로 배수갑문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농생명용지의 공사현황 및 말 산업용지 변경계획과 부지에 대한 부안군민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금번 새만금사업지구 현장 방문계기로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준비 및 기반시설조성과 농생명용지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부안군이 새만금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성황리에 마무리해 부안발전 100년 미래먹거리 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나주시, 양성평등 기념식 개최... 여성 권익증진·사회참여 확대 도모

나주시는 지난 18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도모를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21개 여성단체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생활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는 유공 표창 시상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은 식전 시니어, 여성단체 회원들의 난타, 율동, 아코디언 연주로 분위기를 돋운 뒤 1부는 유공 시상식과 내빈 축·격려사가, 2부에서는 양성평등 이해를 주제로 일상에 만연한 남

녀 간 성차별, 불평등 문화를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 공연이 펼쳐져 열띤 호응을 얻었다. 조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준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여성 리더로서 양성 평등의 여성친화도시 나주 구현에 적극 일조해가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남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갈 것”이라며 “이번 양성평등 기념식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

한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영안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기본을 지켜 위기를 극복하고 청주색이 완연한 도시를 만들 것

한범덕 청주시장, 11월 20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시정연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촉발한 미증유의 위기의 시대인 동시에, 미국 대선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서 국제연대와 다자주의로 변화하는 역동적 시대이다”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킨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청주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묻는 시민 여러분의 오래된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11월 20일 열린 제5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행정의 기본과 핵심적 가치를 담아내고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목표와 예산안 편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 디지털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의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범덕 시장은 “국난극복의 의지를 넘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은 정부예산의 편성 방향에 동의한다. 경제회복에 있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행히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엇비슷하다. 그러나 당면현안인 준공영제 시행, 시청사 건립, 도시공원 매입과 중앙 역사공원 조성 등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음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해졌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보건·안전 관

련 현안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투자할 예산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청주만의 색을 찾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해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부서와 재원의 배분을 고민하는 예산부서간 치열한 고민과 밤낮 없는 토론으로 최선의 안을 마련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예산은 금년 대비 4.7% 늘어난 2조 6,022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복지보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92%인 925억원이 늘었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돼 대부분의 증액분이 의존재원이거나 부채다. 그래서 자체세입과 교부세, 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175억원이 줄어 재정자립도는 1.6%가, 재정자립도는 3.7%가 하락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세출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296억원이 줄어 5,829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재정여력이 악화됐다.

분야별로는 보조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638억원이 늘어난 1조 4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데다 일반회계 구성비의 44.3%를 차지하게 됐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안심사회 조성, 디지털 시대 대응, 자연과의 공존, 적극적 포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청주를 다른 도시와 구별 짓는 특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비율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 외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눈에 띄는 증액 분야이다.

한편 금년 대비 감액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예비비로 141억원이 감액



된 122억원이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도로 관련 예산이 44억원 줄고 행정운영경비도 삭감되는 등 청주시의 정책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SOC사업 축소, 내부경비 절감, 가외성 최소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분하는 등 예산 배분이 고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시정연설의 예산안 분류 기준에 따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에는 총 3개 부문, 42개 사업, 1,3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노후상수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행정표준 정립 연구,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에는 총 4개 부문, 44개 사업, 8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청주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청주페이 발행 및 운영, 사적동 총혼합 추모공원 조성, 장미미점 도시공원 매입 등이 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은 총 3개 부문, 21개 사업,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우산산 도시생태축 복원, 광역제2매립장 조성,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은 총 2개 부문, 44개 사업, 9,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원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은 총 3개 부문, 44개 사업, 1,4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청사 건립, 중앙역사공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기반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주요사업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세대간 연결을 위한 도서·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간혁신 및 행정혁신 사업 등, 적은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힘도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만식기자

부여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최우수”

부여군이 충청남도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월부터 8개 시·군, 76기구의 서류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 4개 시·군에 대해 현장평가를 거쳤고 그 결과 최우수기관에 부여군을 최종 선정했다.

부여군은 굿뜨래 산업육성, 관광산업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에 특화된 동력사업 발굴과 전담조직을 신설해 매월 체계적인 점검·관리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주력한 결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여성 창업 거점 구축사업 정립까지 백제역사 체험 활성화 사업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넘치는 상권조성사업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사업 123사비정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 굿뜨래 로컬푸드 및 종합유통센터 조성운영 양승이 첨단농업 생산단지 구축 등 총 9개 사업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비 최대 확보에 이어 제1단계 사업의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1단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그 동력이 제2단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청양 ‘갈대 후리는 소리’ 민속문화 가치 조명

24일 토론회... 전국유일 유산 보존·육성방안 모색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서 전승돼 온 노동요 ‘갈대 후리는 소리’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원지 토론회가 오는 24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청양신문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갈대 후리는 소리가 가진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존·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갈대 후리는 소리는 제방 축조 이전 인양리 지역 금강변 늪지대에 자라난 갈대를 벨 때 함께 부르던 노동요다. 주민들이 배어낸 갈대는 지붕 이엉, 움막 돌래, 농사용·

생활용 발 재료와 땀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토론회는 서울시 정형호 문화재위원의 진행 속에서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45호 이갈재의 당집터다지기전수관장의 ‘갈대 후리기 민속’ 발표, 이준구 홍보위원의 보존·육성방안 제안으로 꾸러진다. 토론회에 앞서 갈대후리는소리 보존회의 두레농악과 청신여중 학생들의 갈대 후리는 소리 시연이 예정돼 있다. 한상일 보존회장은 “독특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군민 모두의 몫”이라며 “갈대 후리기 민속이 청양군은 물론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보령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

제3회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보령시는 지난 19일 저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김동일 시장과 보조사업 참여자,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 9개팀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시 관계자의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이해 및 내년도 주민공모사업 추진 방향 안내, 팀별 활동사항 발표, 사진전 및 연주회로 진행됐다.

발표회에서 골목사진방팀은 ‘보령원도심, 100년의 기억을 걷다’라는 주제로 원도심에서 사라지는 유무형의 자산을 알리고 세대 간 소통 및 교류를 위해 보령의 옛사진을 통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정화기자



홍천군, 남면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착공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

홍천군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천군은 11월 23일 남면 양덕원리 35번지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착공식을 개최한다. 남면 행복주택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지면적 4,678㎡에 연면적 3,387㎡ 규모로 총 50세대가 거주하게 되며 시설로는 체력단련실, 게스트하우스, 주민공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 근로자·청년·신혼부

부·고령자 등이다. 이번 사업은 홍천군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오며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 및 입주목표를 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갈마곡리 마을정비형 100세대, 하화계리 고령자복지주택 128세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행복주택이 근로자, 청년 등 입주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한파·폭설 대비 영월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한파와 폭설이 자주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영월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영월군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로 제설과 차량 소통, 인명 피해 예방,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 예방, 자원봉사 운영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월군은 원활한 도로 제설을 위해 27개 노선 486km 구간에 제설차량 연합각습 등 제설 자재·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제설 전진기지 10곳을 지정해 폭설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한파와 대설 특보 시 한 발 빠르게 태스크포스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파센터 104개소

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정·운영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승강장 7개소에 안열의자도 운영 예정이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현상으로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겨울 인명, 재산 피해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곡성군, 할머니 화보 모델 화제



전남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의 화보를 담은 보그 코리아 9월호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여성잡지 VOGUE 코리아는 시골에 사는 100세 전후 8명의 할머니 모습을 촬영했다. 완성된 사진은 패션잡지 VOGUE 코리아 9월호에 실렸다.

할머니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촬영 콘셉트처럼 화보 속 할머니들의 모습에서는 따뜻함이 물씬 묻어난다. 반듯한 포즈와 씩씩러운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오랜 세월 쌓인 주름과 어우러져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손에 들고 있는 꽃은 우리의 삶이 특정 시기에 반짝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숙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룬다. 촬영은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요청에서 시작했다.

구곡순담 협의회는 전국 10대 장수군 중 지리산권에 속하는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2003년 구축한 공동협의체이다. 주로 장수고장으로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다.

패션잡지 VOGUE 코리아는 할머니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일상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고 한다. 곡성군 곁면에 거주하는 하남순 할머니는 구수한 사투리로 “위대~ 이 늙은 사람을 찍어서 뭐한당가”고 부끄러워 하면서도 촬영 내내 웃음이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할머니들께서 즐거워하셨다는 것 자체로도 좋은데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까지 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작업이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성태현 소방장, 제2회 소방공무원 SAFE대상 수상

화재안전특별조사 업무 적극적 수행 1계급 특진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주최하는 '제2회 소방공무원 safe대상'에 성태현 소방장이 선정되어 1계급 특별승진과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성태현 소방장은 2007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3년 간 능동적인 예방활동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대규모 국가행사 시 소방안전점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건의 반영 등의 화재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safe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우수 소방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행정업무 등을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상이다.

성태현 소방장은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금남면 김기홍 씨 올해 전국 최고 쌀 생산 영예

제23회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서 대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의 김기홍 씨가 (사)한국쌀전업농중앙회 주관의 '제23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금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쌀 산업의 육성발전과 정보공유를 통한 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출품한 시료를 검증과 분석을 실시해 고품질 쌀 우수농가를

선정, 수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도 및 특·광역시에서 50여 농가가 출품했으며 심사결과 세종시 금남면 김기홍 씨가 올해 최고의 쌀에 수여되는 대상의 영예를 안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준희 시장은 “대통령상 수상은 농업인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세종시로서도 크나큰 영광”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준 모든 농업인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이용섭 시장 “도로시스템 보행자 중심으로 강화”

운암동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 점검하고 안전대책 강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전 최근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암동 스쿨존 교

통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8.5톤 화물차에 치여, 아이 한 명이 숨지고 엄마와 나머지 아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이날 이 시장은 사고현장을 비롯한 인근 횡단보도 신호체계 등을 꼼꼼히 둘러본 뒤 현장에 나온 주민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도로 안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 횡단보도를 없애고 펜스로 막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지판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이 시장은 “고속도로는 차량 중심일 수 밖에 없지만 시내교통만

은 사람안전·보행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시스템을 사람안전·보행자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광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찾아 보행자 안전위주로 개선하고 기존 추진 중인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노면표시, 표지판 정비 및 과속·불법주행차 CCTV, 교통신호기 등 설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안전한 등·하교 통학지도 등 제반 안전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번 교통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갑작스런 참혹한 사고를 겪은데 대한 사과와 함께 희생자 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시장은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다. 일가족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영양조명전기 김기준 대표, 코로나19 극복 방역물품 기탁

영양조명전기는 지난 11월 18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39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업체의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영양조명전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정과 소규모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세트 120개를 기탁했다. 김기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인 총력 대응에 일조하기 위해 방역물품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에 이러한 방역물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내 취약가정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만식/기자



H.O.T 페스티벌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초와 영양초로 만든 빛깔산 고춧가루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o.co.kr
문의전화 054-683-7300

“다시 한 번 확인 해 봤어~”

‘놀면 뭐하니?’ 본캐 유재석, 정재형-김종민과 신박한 재회

MBC ‘놀면 뭐하니?’ 본캐 유재석과 정재형-김종민의 신박한 재회 현상이 포착됐다. 2020년 가을의 끝자락 큰 프로젝트를 마친 유재석이 정재형-김종민과 함께 ‘놀면 뭐하니?’에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한 ‘김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 본캐로 똘치 세 사람은 근황 토크는 물론 향간에 의욕이 일었던 ‘지미 유의 1200만원짜리 금팔찌’의 진실을 밝힌다고 해 금금증을 끌어올린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본캐 유재석과 신박기획으로 깊은 인연을 맺은 정재형-김종민이 함께한 은혜 갚기 ‘김치 배송’ 현상이 공개된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 2020년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 한 해를 돌아보며 고정 출연자 유재석의 부캐 활동에 도움주신 분들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재석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답근 김장 김치를 고마운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며 은혜를 갚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가을 마지막 단풍잎이 만발한 한옥 앞에 반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유재석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모은다.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트랜치코트를 맞춰 입은 정재형과 김종민. 두 사람은 유재석을 보고도 “누구세요?”며 그의 본캐와 부캐 사이 정체성 확인에 나섰다. 지난 3개월간의 환불원정대

함께 신박기획 활동을 마친 후 근황 토크를 하던 중 정재형은 환불원정대에게 선물 받은 ‘지미 유의 1200만원짜리 금팔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재석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유재석은 억울한 목소리로 “깜짝 놀랐어”고 하더니 “다시 한 번 확인 해 봤어”고 ‘금팔찌’에 대한 진실을 공개했다고 해 금금증을 끌어올린다. 이어 제작진의 안내로 자리를 이동한 세 사람은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절친 배추 50포기와 김장 김치 양념을 위한 재료. 그리고 고무장갑 3개가 그들이 맞이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은 듯 코트로 한껏 멋을 낸 세 사람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김장 재료를 앞에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모은다. 정재형과 김종민은 “우리는 고마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며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2020년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본캐 유재석과 정재형-김종민의 신박한 재회 현상은 오는 21일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시청자들과 함께 견디며 웃음과 위로를 건넨 ‘놀면 뭐하니?’는 신박기획과 환불원정대를 통해 센 언니들의 따뜻함과 용기를 모두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코로나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무대에 대한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놀면 뭐하니?’는 24회 ‘이달의 PD상’ TV에는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승희/기자



2019 한국연극 베스트7 선정에 빛나는 고선웅 연출 연극 <낙타상자> 12월 광명시민회관 개최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철빈)은 기획 공연 연극<낙타상자>를 오는 12월 4일(금) 19시 30분, 12월 5일(토) 16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낙타상자>는 시골에서 북평(北平)(현, 베이징)으로 상경한 인력거꾼 상자의 인생 역정을 통해 당시 하층민들에 대한 잔혹한 수탈과 참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 작품으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고선웅 연출의 중국 희곡 시리즈 제2탄이다. 2019 서울연극제에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고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되어 수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공연은 1920년대 군벌들이 할거하던 때, 사회 저변에서 오직 자신의 꿈을 자본산야 인력거를 끄는 상자, 그리고 똥보, 갈비, 늙은 마씨와 어린 손자, 이강 등 인력거꾼의 다양한 면면을 그린다. 중국 고전의 재현이 아닌 재치와 유머가 깃든 대중극을 표방하는 <낙타상자>는 시간의 구분이 없는 무대에서 절제된 양식을 보여줄 예정이다. ‘극공작소 마방진’은 2005년 작가 겸 연출가인 고선웅이 창단한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레퍼토리 씨어터를 표방하는 극단이다. 대표작으로는 <낙타상자>, <리어외전>, <화류비련극 흥도>, <파라르티방>, <칼로막베스>, <들소의 달>, <토끼전> 등이 있으며 <낙타상자>로 2019 한국 연극 베스트7을, <화류비련극 흥도>로 2016 예술의전당 예술대상과 2015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칼로막베스>로 2011 동아연극상을 수상하였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일상 속에서 우수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든 현대무용을 통해 광명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극 <낙타상자>는 만 12세 이상 관람가이며 R석 2만 원, S석 1만 원이다. 예매는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에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객석 피어 앓기’를 시행한다. 공연 전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운영을 실시한다.

광명문화재단은 2020년 광명시민회관에서 기획한 ‘GMC 초이스’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관람카드에 스탬프를 받는 <GMC 관람 카드 이벤트>와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 <후기게시판>에 공연 후기를 남기는 <공연 관람 후기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공연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광명문화재단예술기획팀(02-2621-8845)으로 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삼척시민과 함께하는 2020 송년음악회, “최백호 힐링 콘서트” 열린다.



삼척시는 다음달 11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삼척시민과 함께 하는 2020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고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로 따뜻한 송년을 시민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음악회를 통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송년 음악회는 거친 허스키 보이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심어송 라이터 최백호 단독 힐링 콘서트로 특별한 낭만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 대상은 만12세 이상으로 관람료는 R석-30,000원, S석-20,000원이며 티켓 예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티켓은 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해 현장에서 발권하면 된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공연장 방역수칙에 이격 관객 마스크 착용, 객석 피어 앓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음악 기행’, 20일 사전예약 오픈

25일 오후 7시 30분, 한국공예관 두 번째 기획 공연 막울라

1월의 마지막 수요일에는 여권 없이도 떠날 수 있는 ‘세계 음악 기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청주시와 청주시한국공예관이 25일 오후 7시 30분 문화제조창 5층 다목적공연장에서 두 번째 기획공연 ‘세계 음악 기행’의 막을 올린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의 목적지는 프랑스와 아프리카로 국내 유일의 샹송 가수 ‘무슈 고’를 주축으로 한 프랑스 음악 앙상블 팀 ‘무슈 고&오주부드레 앙상블’과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한국아프리카 음악·춤 연구소’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 관람은 모든 연령대가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관람객 50명만 초대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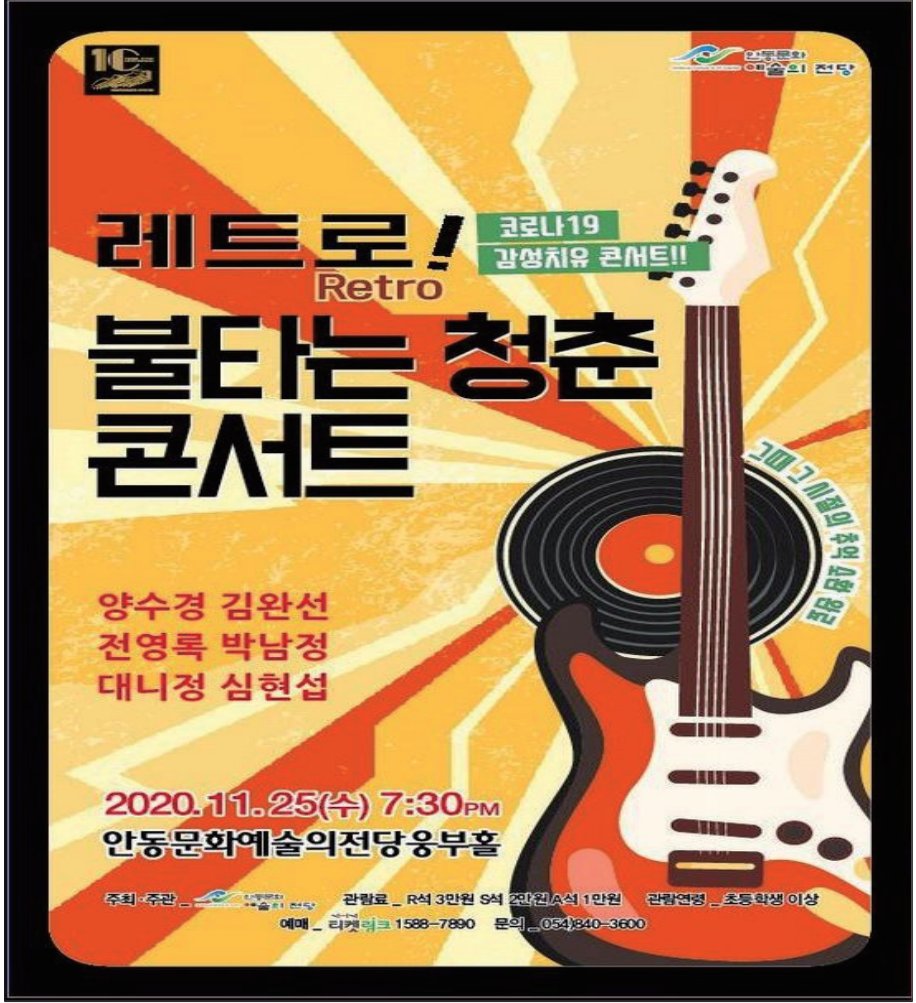
20일부터 24일 10시까지 공예관 공식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인당 4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24일 오후 문자가 발송되며 당일에는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발열체크, QR체크인, 관람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앞서 공예관은 팝페라와 드론 퍼포먼스 등으로 꾸민 첫 기획공연 ‘덕분에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시민들과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공예관 박상연 관장은 “공예관의 첫 기획공연 ‘덕분에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면, 이번 ‘세계 음악 기행’으로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난 달에도 만나질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레트로 불타는 청춘콘서트



8090 최고 스타 김완선, 양수경, 전영록, 박남정, 심현섭 출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레트로 열풍을 즐길 수 있도록 8090 추억 소환‘레트로 불타는 청춘콘서트’를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무부홀에서 진행한다. ‘레트로 불타는 청춘콘서트’는 패션,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에 맞춘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소중한 옛 추억과 향수를 청년들에게는 순수한 감성을 선사할 수 있는 공연이며 809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타들의 최고 히트곡과 재미있는 입담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80년대 여

자 솔로 중 댄스실력, 가창력, 외모를 갖춘 최고의 댄스가수 김완선, 빼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심어송 라이터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양수경, 수많은 히트곡과 다양한 활동을 한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 전영록,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던 실력과 댄스가수 박남정과 세계 최고의 색소포니스트 데이빗 샌본이 인정 받은 천재 색소포니스트 대니정과 개그콘서트의 레전드 심현섭의 입담으로 진행된다. 80~90년대 대한민국의 사로잡았던 대중 가요계의 전설들을 소환해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자극하는 대중성 높은 가요들의 멜로디 속에서 복고풍 감성에 흠뻑 젖는 공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호/기자

경남혁신도시에 음악을 입히다

지역예술인에게는 공연기회, 경남도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제공

‘함지네 버스킹 콘서트’가 경남혁신도시를 찾아온다.

경상남도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함지네 버스킹 콘서트’를 오는 20~21일 양일간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함지네’는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경남혁신도시 및 원도심 주민대표, 전문가,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주도형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0월말 함지네 토론회의 결과물로 경남도는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콘서트’ 개최를 결정했다. ‘함지네 콘서트’는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공연으로 채워진다. 20일 금요일에는 어쿠스틱 부에나, 김기용, 신동엽, 김현수의 공연이 펼쳐지며 21일 토요일에는 서찬우, 여쿠스틱 노트, 살리다, 조진주가 나서 경남 지역 예술인의 공연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예술인의 공연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공연이 지역예술인에게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경남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즐거운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근 경남도 서부정책과장은 “그간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건립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며 “경남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외형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부터는 혁신도시에 문화를 입히는 함지네 버스킹 콘서트와 같은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산업부·과기정통부 힘을 모아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전략 모색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2회 인공지능 산업 표준화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9일 서울 터케이 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회 인공지능 산업 표준화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은 함께 급변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AI 산업화 응용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관 표준화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은 2016년 알파고 출현 이후, AI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 12월에 설립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AI신뢰성 및 윤리, 유즈케이스, AI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논의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원곡으로 설립 때부터 국제표준화에 참여 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AI 선진국과 국제표준화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합심해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AI 서비스 생태계 등 '인공지능 국제 표준화 동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후속주제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과 표준체계, 설명가능한 AI,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 발표를 통해 국제표준화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도 KT 박재형 팀장은 'KT의 AI 기술 개발 현황 및 표준화', 셀렉트스타 신호욱 대표는 '클라우드 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해 AI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위원장과 김정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양 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 등에 있어 양 부처의 역할을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찬/기자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필환경 시대 신성장동력, 미래차·신재생 정책방향 등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9일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11.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이어 필환경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산업계·금융업계 등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성기웅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산업·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는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분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산업동향 분석, 민간의 실제 투자사례 소개 등의

발표도 함께 구성해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인 미래차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사업 구조 전환 계획과 수소펀드 및 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부품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상용 수소 충전소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두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벤처 등 세부분야별 산업동향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현황을 설명하며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서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제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 주요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개최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친환경·디지털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이며 이번 뉴딜 투자설명회 주제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구심체'임을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동일 플랫폼에 게재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리트로 개최될 뉴딜 투자설명회의 다음 순서는 '그린 뉴딜 투자설명회'로 11.26일에 개최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개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마스크 수출경쟁력, FTA로 높이세요"

관세청, 마스크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지원 확대

관세청은 재고 몰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말까지 FTA 활용실적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

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심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능력을 관세청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활용절차가 간소화된다.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품은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를 위해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FTA 활용에 공감을 사한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상북도가 지역 전자산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2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신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기업인들과 함께 '신전자산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민선7기를 맞아 홀로그래프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5G테스트베드와 스마트산단, 산단대개조, 중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전자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G 중심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인프라들이 상당 부분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참고: 신전자산업육성 추진성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혁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전자산업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 전라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올 7월에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융합얼라이언스라는 산업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4차산업에 맞는 혁신과제를 선정해 기업중심의 산학연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차산업은 업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지역 산업계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를 본격 가

동하기 위해 이날 민관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신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전자산업 혁신의 목표를 트기로 했다.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참여기업들은 혁신주체로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야말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기업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7개 분야에 융합얼라이언스 사업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홀로그래프, 리빙케어 가전, e모빌리티 등 4차산업시대에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

해 기업들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10년 후 3만명 이상의 고용증대와 6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산업단지는 대기업 이탈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공장가동률이 반증하듯 여전히 대기업 의존형 생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의존형 생산구조는 중소기업 중심 혁신생태계로 탈바꿈해 단순집적적인 산업클러스터를 탈피하고 개방형 학습생태계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이번 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인프라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이 기업 중심 혁신생태계 육성 정책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경상북도라는 지역이 하나의 혁신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힘을 합쳐 4차산업의 파도를 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호/기자

조달청, 2020 공공조달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 최대 해외조달 상담회인 '2020 공공조달 수출상담회'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상담회는 조달청이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상담회에서는 219개 국내 조달기업이 유엔산업개발기구,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 등 53개 해외 발주처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마스크 등의 의약·방역제품을 비롯해 도로안전시설물 등 건설

자재, 영상설비 등 전자제품에 대해 250여 건의 수출상담을 갖는다. 상담회 기간 동안 해외조달시장설명회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유엔과 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폴란드, 베트남, 케냐 등의 조달시장 진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조달본부,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 세계보건기구, 미연방조달청, 캐나다조달청,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 등의 조달담당자와 폴란드, 베트남,

케냐의 유력한 조달벤더를 초빙할 예정이다. 김경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K-방역을 통해 입증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조달기업이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